배효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5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 요약

함안과 함천지역의 유자이기는 영남지역 전역에서 출토되는 유자이기와는 형태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異形有刺利器로 분류되어 왔다. 최근 함안과 함천지역 출토 유자이기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조형 장식에 주목하여 조형장식 유자이기, 조형장 철판의기 등의 명칭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조형장식이 부착된 함안지역의 유자이기를 분석하여 鳥形裝 鐵板儀器로 명명하고 용도와 부장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함안지역의 조형장 철판의기는 말이산 고분군에서만 출토된다. 이는 당시 함안지역의 중심 고분군이 말이산 고분군이었음을 뜻한다. 또한, 중심고분군 중에서도 최고 위계의 무덤에만 부장된 점은 신분을 나타내는 위세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함안지역 중심 고총고분군의 위세품인 조형장 철판의기의 분석을 통해 아라가야 위세품의 기원과 용도, 부장 양상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영남지역 전역의 유자이기가 3세기대에 출현하여 6세기 말까지 존속하였던 것과는 달리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조형장 철판의기는 5세기에 출현하여 6세기 2/4분기에 완전히 소멸한다. 조형장 철판의기의 소재는 鐵挺으로, 5세기 1/4분기부터 대형 철판이 매납되기 시작하며 5세기 중~후반에 대량으로 매납되다가 조형장 철판의기의 철판 형태가 세장방형으로 변화하는 6세기대에 철판이 매납되지 않는 양상을 통해 조형장 철판의기의 제작소재가 철판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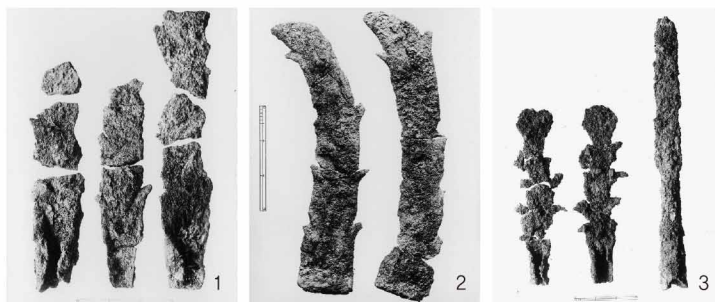
조형장 철판의기는 세모양 장식을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고 방울 등을 달아 소리를 냈던 장승의례나 巫俗에 사용된 기물이었다. 5세기에 대형철판과 함께 대형분에 매납되며 6세기 2/4분기에 소멸한 양상은 고총고분문화의 흥망성쇠와 궤를 함께한 의례·종교적 위세품, 즉 아라가야의 상징물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형장 철판의기, 유자이기, 새 장식

I. 序言

영남지역 고분에는 다양한 鐵器가 부장되는데, 그 중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철판형태의 철기를 有刺利器라고 한다. 유자이기는 넓적한 철판 한쪽에 투겁(投斧)을 만들어 자루에 끼워 쓸 수 있도록 만든 板狀鐵器로 가장자리에 가시가 돋쳐있어 ‘미늘쇠’라고도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板狀의 身部 양옆에 刺가 부착되어 있는데 가시의 형태 외에도 蕨手文,¹⁾ 鳥形裝飾 등이 부착된 모든 형태의 철기를 통칭하여 유자이기라 한다.

유자이기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924년에 발굴조사된 금령총 발굴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다. 보고 당시, 측면의 棘을 특징으로 하여 본



[사진 1] 1924년 발굴조사된 유자이기(1·2: 금령총, 3: 식리총)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체가 鎌의 형태를 띠는 것을 鐵製有棘鎌形利器, 본체에 釜部가 있는 것을 鐵製有棘袋穗利器라고 명명한 것(朝鮮總督府 1931, 1932)이 최초의 기록이다. 조사 당시에는 꺾수문 장식이 부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날카로운 刺가 부착된 개체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기적 성격을 고려한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면서 날카로운 刺를 이용해 상대를 찌르거나 말 위의 병사를 갈고리로 끌어내리는 등 무기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박진욱 1963; 李殷昌 1972; 金基雄 1976)되었고 이는 유자이기의 무기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후, 꺾수문 장식이 부착된 유자이기의 자료가 점차 보고되면서 이를 단순한 무기보다는 儀器(東潮 1998; 류창환 2012; 金榮珉 2008; 徐鈴男 2013)로 해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조형장식이 더해져 장식성이 극대화 된 유자이기와 가

1) 蕨手文, 雲氣文, 螺旋文, 渦文, 소용돌이문, 同心圓文 등 선사·고대부터 모두 같은 형태의 문양을 지칭하는 용어로 유자이기에 부착된 입체적인 형태의 문양을 꺾수문으로 지칭한다(李在賢 2012).

시형 刺나 꺾수형 장식
식이 부착된 유자이
기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제안
(金訓熙 2011)하거
나, 아예 다른 성격의
유물로 구분하여 별
도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
(趙榮濟 2011; 류창
환 2012) 또한 계속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2] 영남지역 고분 출토 유자이기
(1: 부산 동래북천동11·10호분, 2: 경주 구정동 145-1, 3: 함안 말이산13호분)

이에 필자는 함안과 함천지역에서 출토되는 유자이기의 형태가 기존의 꺾수형·가시형 刺가 부착된 유자이기와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有刺利器’라는 용어 자체에 ‘무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영남지역 전역에 출토되는 유자이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조형장식이 부착된 유자이기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함안지역에서 출토된 조형장식이 부착된 유자이기를 중심으로 기존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형장식 철판의기의 용도와 부장 양상, 부장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研究史

유자이기는 1924년 금령총 발굴조사에서 측면의 棘을 특징으로 하여 본체가 鎌의 형태를 띠는 것을 鐵製有棘鎌形利器, 본체에 鍔部가 있는 것을 鐵製有棘袋穗利器로 보고(朝鮮總督府 1931, 1932)되었다. 조사 당시에는 날카로운 刺가 부착된 개체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무기로 인식하여 유자이기라 보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 자료가 증가하면서 날카로운 刺를 이용하여 상대를 찌르거나 말 위의 병사를 갈고리로 끌어내리는 무기(박진욱 1963; 李殷昌 1972;

金基雄 1976)로 인식되었다.

영남지역의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면서 유자이기에 대한 정의와 성격 규정도 새롭게 이루어졌다. 金東鎬(1971)는 鐵鋌의 한쪽 끝을 좌우로 筒처럼 말아서 자루를 꽃도록 하고 다른 한쪽의 양 변을 도려내서 가시처럼 만든 것으로 보아 철정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東潮(1978)는 長方形의 철판을 성형해서 棘狀突起·穗袋部·鉞先部를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그 기원을 北燕馮素弗墓의 鐵旗座에서 찾았다. 그는 유자이기를 무기가 아닌 新羅 貴族의 매장의례용 기물로 파악하였으며,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동안지역의 특징적인 儀器로 보았다.

徐始男·李賢珠(1997)는 영남지역에 출토되는 유자이기를 전수조사하여 소재와 부장시기, 용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세기에 출현하여 6세기 후반에 소멸하며 철정을 소재로 제작하였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정치·경제적 위세품으로 보았다. 金榮珉(2000)은 鐵矛, 鐵劍, 鐵鏃, 鐵斧, 刀子, 異形鐵器 등에 蕨手形, 刺形 또는 鳥形의 장식이 있는 鐵製品을 통칭한다고 有刺利器를 정의하였다. 金訓熙(2011)는 형식학적으로 꺾수형 장식이 유자이기의 원형임을 지적하며 有刺라는 표현 대신 蕨手附儀器나 裝飾附儀器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²⁾ 趙榮濟(2011)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함천 옥전 고분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새모양 장식이 부착되거나 刺가 아예 없거나 퇴화된 형태의 異形有刺利器를 전형적인 유자이기와는 분리하는 의미에서 鳥形裝 鐵板儀器로 명명하였다.

유자이기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北燕馮素弗墓의 鐵旗座에서 찾는 견해(東潮 1978)가 있으나 板狀鐵斧에서 공부가 생겨 착장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했다는 견해(李賢珠 1990; 金訓熙 2011; 金志勳 2014)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재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첫째, 형태에 착안하여 장방형의 철판으로 제작하였다는 견해(東潮 1978), 둘째, 교환·화폐의 가치를 가진 철소재인 板狀鐵斧로 제작하였다는 견해(東潮 1978; 宋桂鉉 1995), 셋째, 철정으로 제작하였다는 견해(金東鎬 1971; 朴東百·秋淵植 1987; 宋桂鉉 1995; 徐始男·李賢珠

2) 金訓熙는 형식학적으로 같은 계열의 선형 유물과 함께 본다면 가시모양을 지칭하는 有刺라는 용어보다는 그 형태의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 蕨手型 장식이 있는 의기로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유자이라는 용어보다 현재의 연구 성과에 맞는 명칭인 蕨手附儀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자의 형태 중에 蕨手型 외에도 鳥形도 있으므로 裝飾附儀器가 더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학계에서 통용되는 유자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유자이기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1997)이다. 최근에는 발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초현기의 유자이기는 판상철부로 제작하고 이후에는 철정으로 제작하였다는 견해(李賢珠 1990; 金訓熙 2011; 金志勳 2014)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하다.

유자이기의 편년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3세기대에 출현하여 6세기 후반에 소멸한다고 보았다(李賢珠 1990; 徐姸男 · 李賢珠 1997; 東潮 1998; 金訓熙 2011; 金志勳 2014).

용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무기로 해석되었으나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초기에는 제한적인 자료를 통해 무기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깃봉(宋桂鉉 2001), 행차용 장엄구(조원창 2017)와 같이 실용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장송의례용 의기(東潮 1998; 류창환 2012; 金榮珉 2008; 徐姸男 2013),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徐姸男 · 李賢珠 1997; 金榮珉 2008; 趙榮濟 2011; 徐姸男 2013; 金志勳 2014; 金訓熙 2011, 2018) 등 상징적 · 의례적 성격을 강조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또한, 巫的 성격이 강한 제사장이나 왕자와 같은 특수한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林孝澤 · 郭東哲 2000)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에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함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조형 장식이 부착된 유자이기를 가시가 퇴화되거나 아예 없는 형태 또는 새모양 장식이 부착되어 함안 · 함천의 지역성이 강한 유자이기로 異形有刺利器(趙榮濟 1988; 李賢珠 1990; 徐姸男 · 李賢珠 1997; 宋桂鉉 2003; 金榮珉 2008; 金訓熙 2018)로 파악하거나 鳥形裝飾 有刺利器(金訓熙 2018), 鳥形裝 鐵板儀器(趙榮濟 2011; 류창환 2012) 등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화려한 새 장식은 내세와 관련되거나(徐姸男 · 李賢珠 1997; 金榮珉 2008), 함안지역 정치체를 대표하는 위세품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해석되었다(宋桂鉉 2003; 趙榮濟 2011; 金訓熙 2018).

이와 같이 유자이기에 대한 용어가 적절치 않음은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며 함안과 함천지역의 유자이기를 鳥形裝 鐵板儀器로 명명하거나(趙榮濟 2011) 함안과 함천지역의 유자이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의 裝飾附儀器로 명명(金訓熙 2011)하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유자이기는 판상철부에서 철정을 소재로 제작하였으며 판상의 신부 좌우에 꺾수형 · 가시형 · 조형 장식의 刺가 부착된 철기로 3세기대~6세기대에 깃봉이나 행차용 장엄구 등 실용기로 사용되거나 매장 의례에 사용된 儀器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 · 경제적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로 부장된 철기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듯 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용어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蕨手附儀器’, ‘裝飾附儀器’ 등 모든 출토품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제안하거나 함안과 함천지역의 출토품을 ‘異形有刺利器’, ‘鳥形裝飾 有刺利器’, ‘鳥形裝 鐵板儀器’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필자도 유자이기라는 사전적 명칭에 무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형태를 포괄한 裝飾附儀器 등의 용어 사용이 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유자이기라는 용어의 상징성으로 인해 다른 용어가 통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異形有刺利器’로 구분하는 함안과 함천지역의 유자이기 중 함안지역 출토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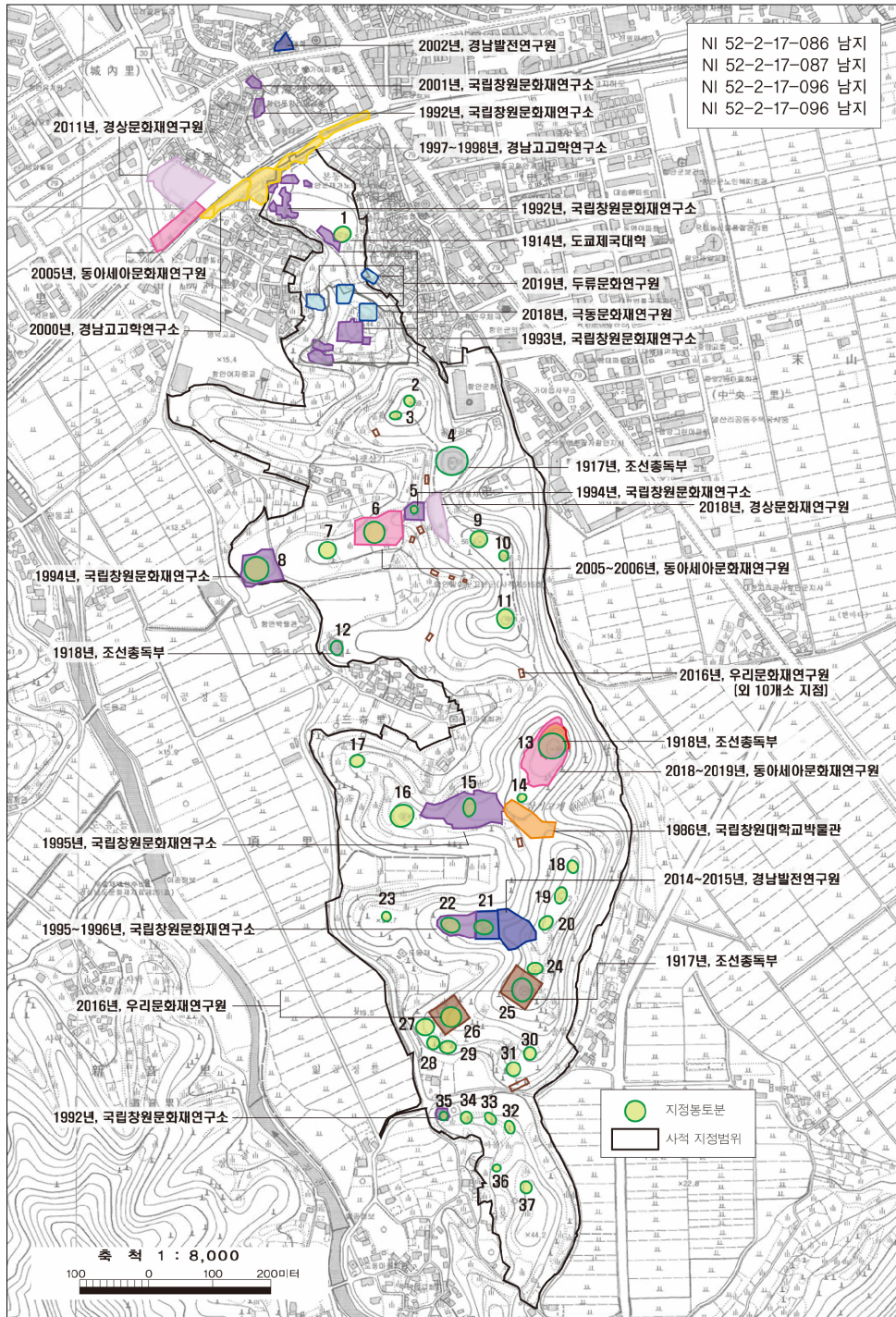
우선 조형장식과 대형철판으로 구성된 함안지역 유자이기의 형식학적 분석을 통해 조형 장식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존의 용어 대신 ‘鳥形裝 鐵板儀器’로 명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을 한정하면 조형 장식이 부착된 함안지역 鳥形裝 鐵板儀器的 명칭과 용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형장 철판의기의 시기와 양상, 부장 의미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鳥形裝 鐵板儀器的 分類와 編年

함안지역 무덤에서 출토된 조형장 철판의기는 모두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확인된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1,000여기³⁾ 이상의 중·소형 분묘가 밀집 분포한 대규모 묘역으로 아라가야(안라국)의 중심 고분군이다. 1963년 함안도항리고분군과 함안말산리고분군으로 각각 지정·관리되다 2011년 ‘함안 말이산 고분군’으로 통합 지정되어 국가사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가야고분군 7개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일제강점기부터 학술 조사가 이루어졌다. 1910년 세키노 다

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2014년에 실시한 정밀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분 127기와 봉분이 없는 고분 299기를 확인하였으며 2014년 이후 시·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봉분 2기와 봉분이 없는 고분 50여기 이상이 추가로 조사되어 500여기가 확인되었으며 1,000여기 이상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사현황(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21 轉載)

다시(關野貞)가 최초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1914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39호분(現1호분)을 발굴조사하였다. 이어 1917년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5·34호분(現25·現4호분)의 발굴조사와 함께 봉토분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1918년에는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1·2호분(現13·現12호분)을 조사하였다(裴孝元 2022).

해방 이후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1981년 가야문화권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現 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학술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⁴⁾ 2014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봉토분 127기를 확인하였다(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4). 이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도면 1]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4세기부터 6세기대까지 아라가야의 중심지로서 함안양식의 토기문화를 꽃피웠다. 4세기에는 철제 무기류와 농공구류, 마구류가 부장되었으며, 5세기대에는 철제 갑주와 무기, 마구, 의기, 농공구 등 가야고분에서 확인되는 모든 종류의 철기류가 부장된다(柳昌煥 2012). 현재까지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유자이기로 보고되었던 조형장 철판의기는 모두 54점으로 목곽묘 12기에서 16점, 석곽묘 28기에서 38점이 출토되었다.⁵⁾ 본 장에서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조형장 철판의기의 속성을 분석하여 형식을 설정하고 시기별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型式分類

조형장 철판의기는 길이 40cm 내외, 두께 0.1~0.2cm의 얇은 철판으로 제작된다. 철판에는 조형 장식을 오려 단접하거나 리벳으로 고정하여 부착함으로써 장식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로 인해 조형장 철판의기는 다른 철기유물에 비해 완형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무덤은 도굴이나 교란으로 훼손된 경

4)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6, 『咸安 岩刻畫古墳』.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7·1999·2000·2001·2004, 『咸安 道項里古墳群Ⅰ~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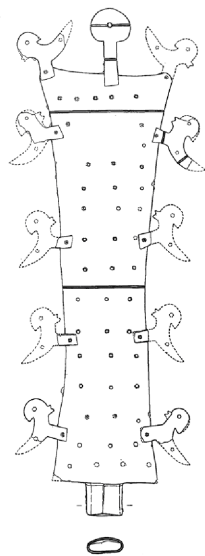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1, 『咸安 馬甲塚』.

5) 현재까지 발굴조사보고서에 보고된 유물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가 많아 파편만 남아 불명철기로 보고되는 등 확인이 어렵거나 조형 장식이 남아있더라도 세부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완형이 아니어도 전체적인 형태를 유추할 수 있고, 길이나 너비 측정(추정)이 가능한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형 장식 또한 한 개체에는 같은 모양의 조형 장식만 부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태의 추정이 가능한 조형 장식이 확인 될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현재 보고된 54점 중 분석이 불가능한 10개체를 제외한 목곽묘 12기 16점, 석곽묘 18기 28점, 총 44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이 불가능한 개체도 10점 또한 분석 가능한 속성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부장 위치나 부장 양상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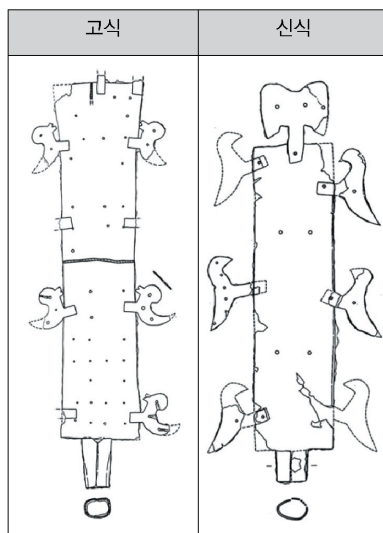
[도면 2] 조형장 철판의기(고13)

1) 屬性 分析

조형장 철판의기는 영남지역 중에서도 함안지역에서만 확인되므로 지역과 공간에 대한 특성보다는 시간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형장 철판의기의 선행연구(趙榮濟 2011; 金訓熙 2018)를 검토하여 문제점은 보완하고 유의미한 속성은 반영하여 본고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趙榮濟(2011)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철판이 다량 매납되는 점을 근거로 조형장 철판의기의 제작 소재를 철판으로 파악하였다. 신부 양면에 돌기상의 刺가 형성되지 않고 반드시 조형 장식물이 부착되며, 선단부에 몸체의 일부를 재단하거나 특이한 형태의 철판을 별도로 부착한 것으로 보았다. 조형 장식은 새의 부리가 긴 것과 짧은 것, 주둥이가 벌어진 것과 꼭 다문 것, 부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나누었고 조형 장식이 형상화·추상화된 것이 비교적 늦은 시기인 5세기 4/4분기 이후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새의 꼬리는 끝부분이 약간 말린 것, 수직으로 솟은 것, 비스듬하게 올라간 것, 수평을 이룬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것이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였으나 말린 것에서 수직을 이룬 것, 그리고 비스듬한 것이나 수평을 이룬 것의 순서로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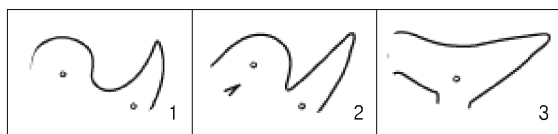
金訓熙(2018)는 조형 장식의 형태를 기준으로 고식과 신식으로 구분하였다. 고식은 조형 장식의 전체적인 형태가 'U'자상으로 휘어져 있으며, 부리의 형태가 다변화하는 반면 신식은 전체적인 형태가 고식보다는 수평적으로 완만하게 휘어지며 부리의 모양이 단순한 것을 특징으로 보았다. 또한 고식에서 신식으로의 변화가 계기적 변화 없이 단절된 양상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고식 18점, 신식 6점을 다른 기준으로 보고 따로 분석한 결과 고식은 5형식, 신식은 3형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⁶⁾ 고식과 신식을 합하여 24점을 8개의 형식으로 세분한 결과 고2형식과 신1형식은 1점밖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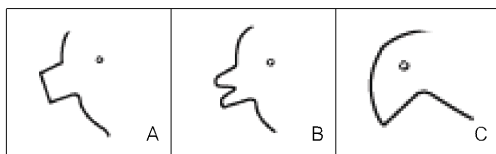
[도면 3] 고식과 신식 조형장 철판의기
(金訓熙 2018 轉載)

되지 않았고, 고1형식이 초현하고, 2기에서는 고1형식과 함께 고2·3·4형식이 공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4기에서도 고5형식과 신1·2형식이 함께 출현하여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철판의 형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변화인지 계통의 변화인지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조형 장식의 속성을 통해 시간성을 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철기유물의 부속 장식인 점을 감안하여 너무 세분하게 되면 형식만 난립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태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꼬리 형태와 부리 형태의 분석을 통해 시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면 4] 꼬리형태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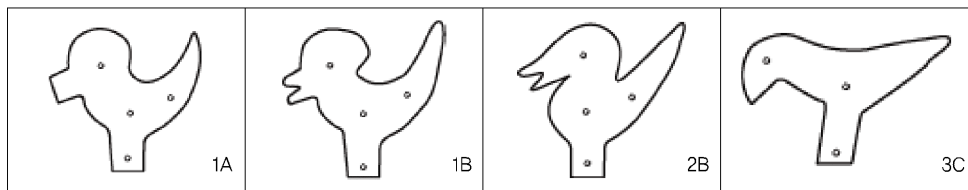


[도면 5] 부리형태 속성

6) 金訓熙(2018)는 말이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조형장식 유자이기라는 점에서 크기는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고식과 신식을 아기종으로서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크게 보이는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속성 분석에서 방향성을 간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식과 신식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조형 장식 중 꼬리 형태(도면 4)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U’자와 같이 곡선적으로 이어지며 꼬리는 안으로 약간 말린 형태(1)⁷⁾와 머리에서 꼬리까지 ‘V’자와 같이 꺾여서 직선적으로 뻗은 형태(2), 머리에서 꼬리까지 수평 혹은 와 비스듬하게 뻗은 형태(3)로 나누었다. 부리 형태(도면 5)는 다물어진 형태(A)⁸⁾와 벌어진 형태(B), 부리가 형상화되어 머리와 부리가 구분이 안되는 형태(C)로 분류하였다.

조형 장식의 꼬리 형태와 부리 형태의 속성을 조합하면 [도면 6]과 같이 4가지로 조합된다. 1A식은 꼬리 형태 1과 부리 형태 A의 조합으로 부리를 다물고 둥근(혹은 뒷통수가 각진) 머리의 형태와 곡선적으로 뻗은 꼬리의 형태로 18점이 확인된다. 1B식은 꼬리 형태 1과 부리 형태 B의 조합으로 1A의 형태와 비슷하나 부리가 벌어진 형태이며 8점이 확인된다. 2B식은 꼬리 형태 2와 부리 형태 B의 조합으로 부리가 길쭉하게 벌어졌으며 머리에서 꼬리까지 ‘V’자로 꺾여서 직선적으로 뻗은 꼬리의 형태이며 7점 확인된다. 3C식은 꼬리 형태 3과 부리 형태 C의 조합으로 전체적으로 새가 형상화된 형태로 11점이 확인된다. 각 형식 간에는 뚜렷하진 않으나 시간성이 간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6] 조형 장식의 속성 조합

그 외에도 철판 선단부의 장식, 철판 내부의 투공, 조형 장식의 머리-꼬리의 형태와 결합방법·개수, 공부의 형태 등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조형 장식 머리-꼬리의 형태는 [도면 6]의 1A의 둥글게 곡선으로 이어진 형태, 1B의 뒷통수 90° 이상 꺾인 후 꼬리까지 곡선으로 이어진 형태, 2B의 뒷통수와 꼬리가 급격히 꺾여 올라간 형태로 분류(金訓熙 2018)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파괴분, 문마석1호, 두45호분, 문44호 등 조형 장식의 잔존양상이 불명확하여 실측 도면에만 의존해야하는 점과 분류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본고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같은 형식 내에서는 뒷통수가 둥근 형태가 뒷통수가 90° 이상 꺾인 형태보다 선행하는

7) 약간 안으로 말린 형태가 대부분이나 직선적으로 뻗은 형태도 같은 범주에 포함하였다.

8) 부리가 길쭉하게 뻗은 형태도 확인되어 같은 범주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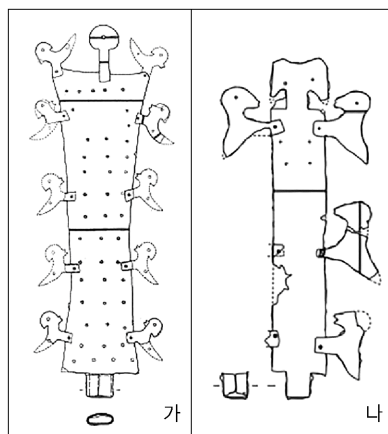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판 선단부의 장식은 양 끝단에 조형 장식 2개를 부착(3점)하거나 원형의 장식을 선단부 중앙부에 부착(3점)한다. 조형 장식 2개와 원형의 장식을 함께 부착하는 경우(8점)가 더 많으며 조형 장식의 꼬리를 등에 맞댄 듯한 형상의 장식(8점)도 확인된다.

철판 내부의 투공은 신부의 형태는 상단이나 하단이 중앙부보다 넓은 형태(가)에 3열(주로 3열로 배치되나 2열 또는 4열 이상으로 뚫린 것도 확인된다.)로 배치되며 길쭉한 세장방형의 철판(나)에는 2열로 배치된다. 조형 장식의 결합방법은 리벳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접하거나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조형 장식의 개수는 철판 (가)에는 한 쪽 면에 3~5개가 부착되었으며, 철판 (나)에는 한 쪽 면에 3개씩 부착된다. 공부의 형태는 착장하기 위해 길게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나 공부의 형태만 남은 것도 확인된다.

부장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목곽묘와 석곽묘 모두 주로 대형분에서 출토되며 석곽묘의 출현기에 해당하는 5세기 전반대의 유구 중에는 중형분에도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부장위치 또한 피장자의 측면이나 머리 쪽 혹은 발치 쪽에 주로 부장되는 것이 확인된다.

신부의 형태는 상단이나 하단이 중앙부보다 넓은 형태(가)와 길쭉한 철판의 세장방형(나)으로 구분된다. (가)의 경우 신부 안쪽에 3열⁹⁾로 투공이 뚫려 있으며 선단부에 원형 장식이 부착되거나, 선단부의 양 끝단에 조형 장식 2개를 부착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 신부 안쪽에 2열로 투공이 뚫려 있고 선단부에 조형 장식의 꼬리를 등에 맞댄 듯한 형상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도면 1] 신부 형태 속성

조형 장식과 신부 형태의 속성을 조합해 보면 신부 형태 (가)가 조형 장식 I~III형식과 조합되고, 신부 형태 (나)는 조형 장식 IV형식과 조합된다. 따라서 신부 형태도 시간성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 주로 3열로 배치되어 있으나 4~5열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어 3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표 1] 조형장 철판의기 일람표

형식	함안 말이산 고분군					수량	계측치		부장 위치	소장	새수	꼬리			부리			신부		선단부
	유구	묘제	묘광	곽	규모		길이	너비				I	II	III	A	B	C	가	나	
I	문36	목곽	670*285	455*165	대형	1	29.5	7.7	두부		3+	●			●			●		새2
	문44	목곽	385*150	330*90	중형	1	30.1	9.7	두부		3+	●			●			●		
	문3	목곽	620*270	520*190	대형	1	35.9	10.2	발치		3+	●			●			●		원+새2
	경목14	목곽	388*131	301*86	중형	1					3+	●			●			●		새2
	문48	목곽	760*430	540*200	대형	1	34.8	12.0	피장자		3+	●			●			●		
	문9	목곽	590*235	410*130	중형	1			수습		3?+	●			●			○		
	문마석1	석곽	(680)*(240)	520*100	대형	1	45.6	10.0	두부?		4+	●			●			●		원+새2
	두목1	목곽	844*426	614*248	대형	3			두부		3+	●			●			●		
	문39	석곽	870*400	650*160	대형	1			피장자		4+	●			●			○		
	고파	석곽	파손		초대형	2			장벽		3+	●			○			●		원+새2
	문38	석곽	1120*320	640*140	대형	1					4+	●			●			○		
	경57	석곽	890*380	600*140	대형	2	45.4	12.1	피장자	2	3+	●			●			●		원형
	경석1	석곽	670*250	530*110	대형	2	41.5	8.7		1	4/3+	●			●			●		원+새2
	경목13	목곽	423*157	352*89	중형	1	36.7	6.6	장벽		4+	●			●			●		원+새2
II	문10	목곽	710*330	480*180	대형	2	51.7	15.4	두부		4+	●			●			●		원+새2
	두45	목곽	970*453	636*249	대형	1			두부		3+	●			●			●		
	문43	목곽	700*320	530*170	대형	1	29.9	9.7	피장자		3+	●			●			●		
	고13	목곽	650*250	520*150	대형	2	58.5	15	발치		4+	●			○			●		원+새2
	경석18	석곽	664*228	476*104	중형	1					?+	●			●			○		원+새2
III	우527-석2	석곽	790*282	612*147	대형	2	(41.5)	9.5	두부		4+		●		●			●		원형
	HM8	석곽	1300*300	1100*185	초대형	2			두부		4+		●		●			●		새2
	HM22	석곽	1400*450	900*180	초대형	1	41.0	9.8	수습		3+		●		●			●		원형?
	HM15	석곽	1120*330	910*185	초대형	1	41.7	9.5	발치	4	4+		●		●			①		
	HM6	석곽	1400*470	980*170	초대형	1	44.1	14.9	곽상부	5	3+		●		●			①		조형
IV	HM6	석곽	1400*470	980*170	초대형	1	40.5	15.3	곽상부	5	3+			●			●	①		조형
	HM8	석곽	1300*300	1100*185	초대형	2					3			●			●		●	원형
	HM6-1	석곽	900*270	700*170	대형	1	51.0	10.0	곽상부		3			●			●		●	조형
	HM6-2	석곽	830*270	600*160	대형	1		7.5			3			○			○		●	조형
	역451-1	석곽	1070*290	870*170	초대형	2			수습		3			●			●		●	조형
	HM10	석곽	1030*380	880*164	초대형	1	45.0	7.5	순장자	2	3			●			○		●	조형
	창14-2	석곽	750*210	675*125	대형	1	26.8	7.3	발치		3			●			●		●	조형
	HM26	석곽	1320*370	1010*160	초대형	2	-	8.0			4	3			●			●		조형

(문: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고:경남고고학연구소, 경:경상문화재연구원, 창:창원대학교박물관, 역: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동: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현: 현재지정번호, HM: 현재지정동분 번호)

앞서 살펴본 속성 검토 결과를 [표 1]로 나타내었다. 표를 살펴보면 Ⅲ형식의 신 부 형태 (가) 중 원의 절반만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공부의 형태가 짧아서 착장보다는 형태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따로 표시하였다.

2) 型式分類

조형장 철판의기의 속성 중 시간성을 반영하는 조형 장식의 꼬리 형태와 부리 형태, 신부의 형태를 통해 형식을 설정하였다. I 형식은 조형 장식 1A와 신부 형태 (가)의 조합으로 19점이 출토되었다. 4세기부터 이어진 대형의 목곽묘에 부장되며 5세기에 등장하는 석곽묘 중 대형분에 주로 부장된다. 목곽묘 중에서는 길이 3m대의 중형분에 3점 부장되거나 주로 5m 이상의 대형분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무덤마다 1점씩 부장되거나 석곽묘인 고파괴분과 경57호분, 경석1호묘에서 2점씩 부장된 예도 있으며 두목1호묘에서는 3점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철판의 선단부에는 조형 장식 2개를 양끝단에 배치하거나, 중앙에 원형의 장식과 조형 장식 2개가 함께 부착되기도 하며 주로 피장자의 머리 부분이나 발치부분 쪽에 피장자와 함께 매납하였다.

Ⅱ 형식은 조형 장식 1B와 신부 형태 (가)의 조합으로 7점이 출토되었다. 대형의 목곽묘에 1점 혹은 2점씩 부장되었으며 중형의 석곽묘에도 부장된다. 철판의 선단부에는 중앙에 원형의 장식과 조형 장식 2개를 함께 부착하였으며 주로 피장자의 머리

[표 2] 목곽과 석곽의 위계에 따른 조형장 철판의기 출토 양상(上: 목곽, 下: 석곽, 金訓熙 2018 轉載)

묘의 규모	유자이기	유자이기○			유자이기×		
	부장 유물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대형		4	2	1	1	—	1
중형		—	—	3	—	—	20
소형		—	—	—	—	—	19

〈위계〉 ■ : 상위, ■ : 중위, ■ : 하위

묘의 규모	유자이기	유자이기○			유자이기×		
	부장 유물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갑주× 마구×
초대형		6	5	—	2	—	—
대형		1	4	1	3	3	2
중형		—	3	4	—	—	9
소형		—	—	—	—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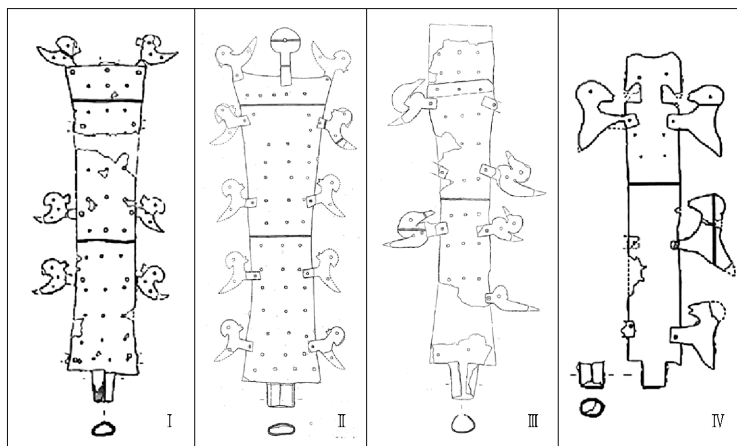
〈위계〉 ■ : 최상위, ■ : 상위, ■ : 중위, ■ : 하위

나 발치부분 쪽에 피장자와 함께 매납하였다.

Ⅲ형식은 조형 장식 2B와 신부 형태 (가)의 조합으로 7점이 출토되었다. 목곽묘가 소멸한 시점으로 대형급 이상의 석곽묘에만 부장된다. 고총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대형묘를 중심으로 부장되는 양상 또한 확인된다. 철관의 선단부에는 중앙에 원형의 장식 또는 양끝단에 조형 장식 2개를 부착하기도 하며, 조형 장식 2개를 등을 맞대고 붙여놓은 모습을 형상화한 장식을 가운데 배치하기도 한다. 주로 피장자의 머리나 발치부분 쪽에 피장자와 함께 매납하였다.

Ⅳ형식은 조형 장식 3C와 신부 형태 (나)의 조합으로 11점 출토되었다. 초대형의 석곽묘에만 부장되며 두부나 피장자의 옆에 부장되기도 하나 순장 공간 등에 부장되기도 한다. 철관의 형태는 폭이 좁은 세장한 형태로 변화하며 철관의 양측에는 조형 장식이 형상화된 것이 부착된다. 철관의 선단부에는 조형 장식 2개를 등을 맞대고 붙여놓은 모습을 형상화한 장식이 모든 조형장 철관의기에 부착되며 공부도 짧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I 형식에서 IV 형식은 등장 시점의 선후관계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계기적인 변화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를 감안하여도 시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철



[도면 8] 조형장 철관의기의 형식

기 유물의 유의미한 변화상을 간취한 결과를 [도면 8]의 조형장 철관의기의 각 형식별 도면으로 제시하였다.

2. 編年

함안지역의 편년연구는 말이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토기 · 철기 · 묘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토기 연구 성과(金正完 1994, 2000; 李柱憲 2000;

禹枝南 2000; 朴升圭 2010)와 묘제 등 고분문화 전반(朴天秀 2003, 2010; 洪潛植 2014)을 중심으로 한 연구, 마구(柳昌煥 2007, 2012), 조형장 철판의기(趙榮濟 2011; 金訓熙 2018) 등 철기유물의 편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편년표에 제시된 않았으나 묘제를 통해 아라가야의 고총체계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밝힌 崔景圭 (2023a, 2023b)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형장 철판의기의 편년을 살펴보았다.

말이산 고분군의 편년연구를 검토한 결과, 상대연대는 대동소이하며 절대연대에 서 일부 차이가 확인된다. 우선 趙榮濟(2011)는 HM6호분 조형장 철판의기를 6세기 1/4분기로 편년하고 있으나 裴孝元(2018)의 낙동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한 신석도질 토기의 연구를 중 기대+장경호의 세트 조합과 대호의 발치부장 양상이 5세기 말까지 이어지고 6세기대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 崔景圭(2023b)의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총 축조 체계 등을 참고하여 HM6호분 조형장 철판의기를 5세기 4/4분기로 조정하였다. 하지만 HM6호분에 III형식과 VI형식이 공존하는 점, 金斗喆(2011)의 검능형행엽의 연대를 고려하면 5세기 4/4분기에서 6세기 1/4분기까지 연대 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연구자별 편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표 3]이며 이를 바탕으로 [표 4]에 제시된 조형장 철판의기의 형식별 존속기간을 검토하였다.

[표 3] 연구자별 함안 말이산 고분군 편년

	김정완 1994 2000	이주헌 2000	우지남 2000	박승규 2010	박천수 2003 2010	류창환 2007 2012	홍보식 2014	조영제 2012	김훈희 2018
5C1/4	문48	문3,36,48	문6,17,33,36 문44,45 경15,32,10	문1,3,6,36 문44,48	문36	문3,36,43,48	문6,36	문44,36,3 경14	문3,36, 44,48 경14
5C2/4	마갑총 문10	문10 경13	문3,10,마 경13,1	문마,10,20 경13	경13	문10,마 경13 고13	문3,10, 문마,48 경13	문10,9,48 고13 경13	문9,10,43 문마석1 고13
					현8				
5C3/4	현4 문39	현4 문39	문14,38,39 현4 경11,16 고파	현4 문14,38,40 경16 마석1,2	현15	현4 문38,39 고파	현4 문14	문39 고파	문38,39 경18 고파 현4
5C4/4	현25 창14-1	문38,54 현5,15 창14-1	문20,54 창14-1 경61	현8,15 문51,54 창14-1	문51	현5,8,15,22 문54 동6 창14-1	문38,54 현5,8 동6	마석1 현8,15 문38 경2,18	현15,22,8 동6,6-1,6-2 우527-2 경2,7,12,19
6C1/4	창14-2 현35(암)	창14-2 현35(암) 문4,5	창14-2 현35(암) 경3,5	현35(암각) 현22 문52 경3	현35(암)	현35(암각) 창14-2	현22,15 창14-1	현22 역451-1 경10,12,19 동6,6-1,6-2	역101,451-1 현26,25 창14-2 우527-6
					문5,8,47				
6C2/4	문4,5,8,47	문8,47	문4,5,8,13,47 경31	문4,8,47 경31		문1,4,47 역451-1,5	문47		

(문: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고:경남고고학연구소, 경:경상문화재연구원, 창:창원대학교박물관, 역: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동: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현: 현재지정번호, HM: 현재지정부분 번호)

5세기 1/4분기에는 조형장 철판의기의 초현하는 시기로 I 형식이 출현한다. 전대에 이어 조영되는 최상위 혹은 차상위의 위계에 속하는 대형급 목곽묘에 부장되며 피장자 주변에 1점씩 매납된다. 공반유물 중 토기류는 화염형 투창고배가 초현하며 호+기대 세트와 대호의 부장이 확인된다. 철기류는 대형 철정이 다

량 매납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문36, 48호분 등의 출토예와 같이 대도·철모·철촉으로 구성되는 기본 무기 세트가 갖추어진다. 마구·갑주류도 기본적으로 갖추지며 철부·도자·철검 등 농공구류도 부장된다.

5세기 2/4분기에는 조형장 철판의기 II 형식이 출현하여 I 형식과 공존한다. 대형 목곽묘와 석곽묘에 1~2점씩, 피장자의 주변에 매납된다.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토기류와 철기류의 부장양상도 이어진다.

5세기 3/4분기에는 I 형식과 II 형식이 공존한다. 목곽묘에는 조형장 철판의기가 더 이상 부장되지 않으며 초대형의 고총고분을 비롯한 대형의 석곽묘에 1~2점씩, 피장자의 주변에 매납된다.

5세기 4/4분기에는 I 형식과 II 형식이 소멸하며 III 형식과 IV형식이 출현한다. 주로 대형의 고총고분에 1~2점씩 매납되는 양상은 이어지나 곽상부에 매납되는 등 부장 양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HM6호분과 HM8호분에는 III 형식과 IV형식이 함께 출토되는데 HM6호분에는 III 형식과 함께 철판이 철판의 형태에 조형 장식이 형상화되는 III 형식과 IV형식 사이의 과도기적 양상이 확인되며 2점 모두 곽상부에 매납되고, HM8호분에는 III 형식이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 2점, IV형식은 곽상부에 2점씩 매납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5세기 3/4분기와는 다른 매납양상이 간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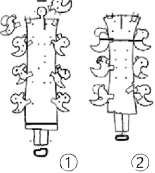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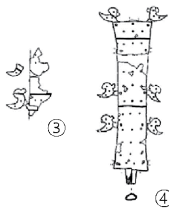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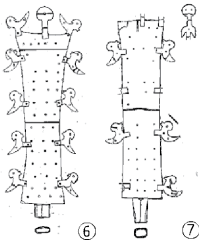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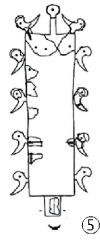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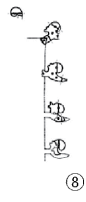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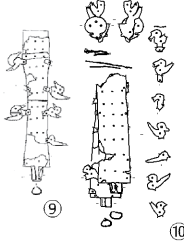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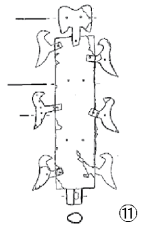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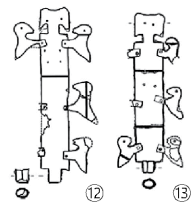
6세기 1/4분기에는 III 형식이 소멸하고 IV형식만 존속한다. 대형의 고총고분에 1~2점씩 매납되는 양상은 이어지나 피장자 근처가 아닌 부장공간이나 순장자공간 등에 매납된다. 이후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횡혈식 석실묘가 조영되기 시작한다. 유물의 부장양상 또한 변화하는데 조형장 철판의기가 더 이상 매납되지 않고 소멸하며, 화염형 투창고배와 함께 호+기대의 세트조합, 대호의 매납 등 토기류의 부장양상이 이 시기까지 존속하며 더 이상 부장되지 않는다. 철기류도 꾸준히 부장되는 장식마구를 제외한 무기·무구류도 부장량이 줄어들며, 철정도 더 이상 부장되지 않는다. 이

[표 4] 형식별 존속기간

시기	형식			
	I	II	III	IV
5C1/4	■			
5C2/4	■	■		
5C3/4	■	■		
5C4/4			■	
6C1/4				■

[표 5] 조형장 철판의기 출토유구 일람표

시기	형식	함안 말이산 고분군					토기					농공구			무기			무구	마구	장신구				
		유구	묘제	규모	수량	부장 위치	화염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상형토기	대호	철정	철부	공구	환두	도모	물미	철촉		주	갑	마구	마갑
5C 1/4	I	문36	목곽	대형	1	두부		●	●	●		●	●	●		●	●	●	●			●		
	I	문44	목곽	중형	1	두부										●								이식
	I	문3	목곽	대형	1	발치	○	●	●							●		●				●		
	I	경목14	목곽	중형	1								●			●		●						
	I	문48	목곽	대형	1	피장자							●	●	망치	●	●	●	●		●	●		이식 경식
5C 2/4	I	문9	목곽	중형	1	수습	●											●						
	I	문마석1	석곽	대형	1	두부?	●		●									●				●		
	I	두목1	목곽	대형	3	두부	●	●	●	●		●	●	●										경식
	II	경목13	목곽	중형	1	장벽																		
	II	문10	목곽	대형	2	두부		●		●		●	●	●				●				●		
	II	두45	목곽	대형	1	두부	●	●	●	●	●	●	●			●		●	●	●	●	●	●	금동관 경식
	II	문43	목곽	대형	1	피장자							●			●	●	●	●	●	●	●		
5C 3/4	II	고13	목곽	대형	2	발치	●	●	●	●		●	●			●	●	●	●		●	●		
	I	문39	석곽	대형	1	피장자		●			●							●			●	●		경식
	I	고파	석곽	초대형	2	두부	●					●		●	살포		●	●				●		경식
	I	문38	석곽	대형	1	두부	●	●				●		●			●					●		
	I	경57	석곽	대형	2	피장자		●		●			●	●		●	●	●	●					이식
	I	경석1	석곽	대형	2	발치							●				●	●						
5C 4/4	II	경석18	석곽	중형	1					●	●		●			●						●		
	III	우527-석2	석곽	대형	2	두부	●						●	●		●	●	●						
	III	HM8	석곽	초대형	2	두부		●	●			●	●	●		●	●	●	●	●	●	●	●	이식 경식 대금구
	III	HM22	석곽	초대형	1	수습	●		●			●	●	●		●	●		●		●			
	III	HM15	석곽	초대형	1	발치	●		●			●		●		●	●	●				●		
	III	HM6	석곽	초대형	1	곽상부	●	●	●			●		●		●	●	●	●	●		●	●	경식
	IV	HM6	석곽	초대형	1	곽상부	●	●	●			●		●		●	●	●	●	●		●	●	경식
	IV	HM8	석곽	초대형	2	곽상부?		●	●			●	●	●		●	●	●	●	●	●	●	●	이식 경식 대금구
	IV	HM6-1	석곽	대형	1	곽상부	●	●	●				●		●		●		●					
	IV	HM6-2	석곽	대형	1								●			●								경식
6C 1/4	IV	역451-1	석곽	초대형	2	수습	●	●	●							●	●					●		
	IV	HM101	석곽	초대형	1	순장자	●	●	●	●		●		●	살포		●	●				●		경식 이식
	IV	창14-2	석곽	대형	1	부장공간										●		●	●			●		
	IV	HM26	석곽	초대형	2	곽상부?	●	●	●			●		●		●	●	●	●		●	●		

	I	II	III	IV
5C1/4				
5C2/4				
5C3/4				
5C4/4				
6C1/4	 ①문3, ②문44 ③문9, ④문마1, ⑤고파 ⑥고13, ⑦문10, ⑧경13, ⑨HM8, ⑩우527-2 ⑪HM6-1, ⑫HM101, ⑬역451-1			

[도면 9]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조형장 철판의기의 각 형식

러한 변화 양상은 함안지역의 고총고분문화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6세기 2/4분기에 이르면서 세력이 약화되어 함안양식의 토기문화와 위세품, 무기·무구류 부장량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Ⅳ. 鳥形裝 鐵板儀器의 用途와 副葬 意味

본 장에서는 조형장 철판의기의 용도와 부장 양상, 그리고 부장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鳥形裝 鐵板儀器의 起源과 用途

1) 素材

조형장 철판의기의 독특한 특징은 얇고 길쭉한 철판에 조형 장식을 부착한 형태에 있다. 철판의 형태는 삼한시대에 교환·화폐의 가치를 지닌 철 소재인 板狀鐵斧를 가공하여 제작한 3세기대의 유자이기로 거슬러 올라간다(東潮 1978; 宋桂鉉 1995). 삼국시대에는 板狀鐵斧의 기능과 역할이 鐵鋌으로 대체되며 유자이기의 소재 또한 철정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李賢珠 1990; 金訓熙 2011; 金志勳 2014).

[표 6] 철판 일람표

(류창환 2012 改變)

유구	묘제	규모	매수	길이	너비	부장위치	평면형태	조형장 철판의기
문36	목곽	대형	40매	18.0~20.4	3.4~6.2	목관 아래 관대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문43	목곽	대형	2매	14.6	2.5	수습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문48	목곽	대형	77매	34~42(7) 17~22(70)		목관 아래 관대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문10	목곽	대형	10매	46.8~50.2		피장자 두부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문27	목곽	대형	8매	21.1~23.5		피장자 두부?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	×
HM8	석곽	초대형	32편	18.0~20.5	2.0~3.0	피장자 발치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직선·반원	○
HM15	석곽	초대형	17편	10.0 내외	2.0 내외	피장자 발치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직선·반원	○
HM22	석곽	초대형	27편	14.0 내외	3.5 내외	피장자 발치?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직선·반원	○
경54	석곽	대형	14편	12.5 내외	2.3 내외	피장자 발치	좌우 호상, 양단부 내만·직선·반원	×
HM6	석곽	초대형	53편	18.0 내외	2~3	피장자 두부	소형 철판, 형태 다양	○

이러한 양상은 5세기대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는 문48호분과 문10호분 등에서 조형장 철판의기와 함께 대형 철판이 다량으로 매납되었으며 그 외에도 [표 6]과 같이 HM15·HM22·HM6호분, 문36·43·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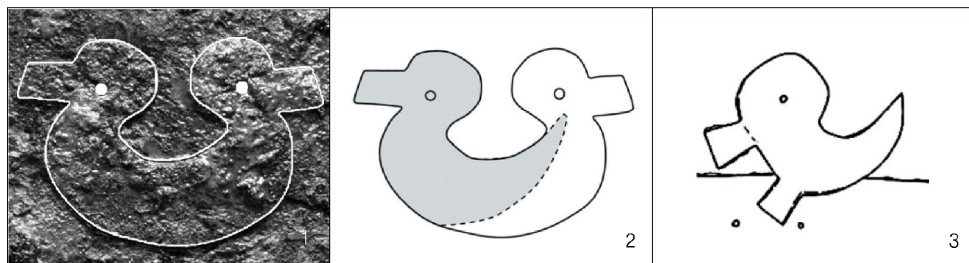
분 등에서 조형장 철관의기와 다량의 대형 철정이 함께 매납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즉, 4세기대에는 철정이 매납되지 않다가 5세기 1/4분기에 조형장 철관의기의 출현과 함께 대형 철정이 매납되는 양상을 통해 조형장 철관의기도 영남지역의 유자이기와 같이 鐵鋌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6세기대에 접어들면 조형장 철관의기의 철관 형태가 철정의 형태가 아닌 세장방형 철관의 형태로 변화하는데, 이는 철정이 부장되지 않는 상황과 연동한다. 柳昌煥(2012)은 아라가야의 고분에 부장된 철정은 수장 또는 지배자들이 지역 내 철과 철기의 생산·유통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역과 인민을 지배했음을 상징하는 자료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영 집단은 철정의 대량 매납이 확인되지 않는 6세기대에 철과 철기의 생산·유통을 장악하지 못하고 위세가 약화된 상황에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起源

조형장 철관의기의 조형 장식은 유물의 명칭으로 사용될 만큼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 기원과 계통을 파악하기 위해 조형 장식의 祖形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형장 철관의기 출현 이전의 조형 장식은 [도면 10]과 같이 삼한~삼국시대의 鴨形土器와 板甲의 장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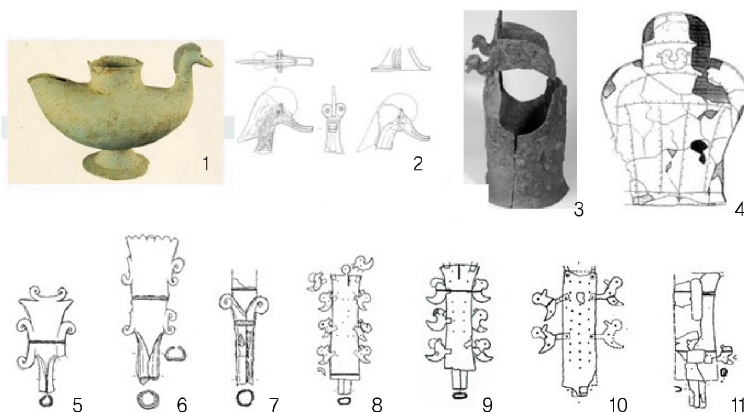
새모양토기는 울산 하대 46호분, 김해 대성동 24호분, 부산 동래 복천동 38호분을 비롯해 함안 말이산 34호분 등에 출토된다. 새모양토기의 부장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傳의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기사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國史編纂委員會 1986)되거나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바라고,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도면 10]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조형 장식 비교(金訓熙 2018 轉載)

(1. 대성동 2호 출토품 2. 대성동 2호 출토품 꼬리 수정 3. 말이산고분군 문3호 출토품)

‘영혼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國立金海博物館 2004)고 해석되기도 한다. 즉, 당시 사람들은 새가 死者의 영혼을 인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장자와 함께 무덤에 부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물질자료와 문헌 기사를 근거로 柳昌煥(2012)은 변진의 신앙이 가야·신라로 이어지고 그러한 상징물로 조형 장식이 부착된 의기가 고분에 부장되었다고 보았다.



[도면 11] 조형 장식의 원류와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형장 철판의기

趙榮濟(2011)는 김해 예안리 150호분, 양동리 275호분, 포항 옥성리 가-55호분에서 출토된 유자이기의 선단부가 톱니 모양으로 처리된 것이 함천 옥전 11·41·76·35호분 등에서 발견된 조형장 철판의기와 유사하며, 4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김해 예안리 104·150호분 유자이기의 선단부에 장식이 부착된 점 등을 근거로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조형장 철판의기의 원류가 4세기대 김해지역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5세기 1/4분기에 초현하는 문3호분의 조형장 철판의기와 함께 궤수문이 부착된 유자이기가 공반되는 점을 통해서도 김해지역의 유자이기가

조형장 철판의기의 모델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형 장식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傳의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매장관념이나 사후세계와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새모양토기, 새장식문양, 새장식 등의 요소와 더불어 조형장 철판의기의 조형 장식 또한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매장관념과 의례에 사용된 기물에 부착된 장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새모양토기, 판갑의 조형 장식, 초현기 조형장 철판의기와 꺾수문이 부착된 유자이기가 공반하는 점 등이 영남전역의 고분군 중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만 유독 조형장 철판의기가 부장되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원류로 본 부산·김해지역에 조형장 철판의기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철제 의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직접적인 원류로 보기 힘든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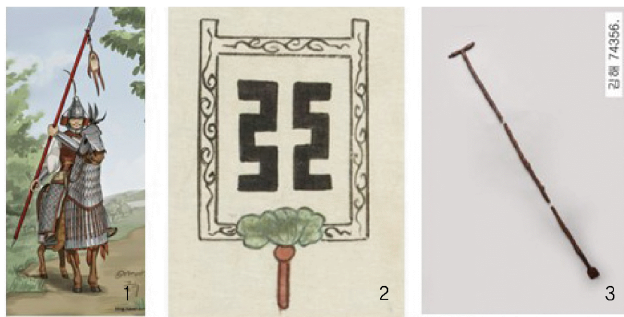
하지만 4세기대부터 이어진 부산·김해지역의 대형 철정 매납 양상이 5세기대의 함안지역에 나타나는 점 또한 조형장 철판의기의 모티브가 부산·김해지역과 관계없다고 보기 힘든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조형장 철판의기는 4세기대에 영남지역 전역에서 제작·확산되어 부장되었던 꺾수형 유자이기를 모티브로 하여 5세기대에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제작·매납된다. 출현 단계부터 기존의 유자이기와는 확연히 다른 완성된 형태로 출현하며 조형 장식의 모티브는 부산·김해지역의 새모양토기와 판갑에 부착된 조형 장식 등 종교적 의례와 관련된 새 관련 기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用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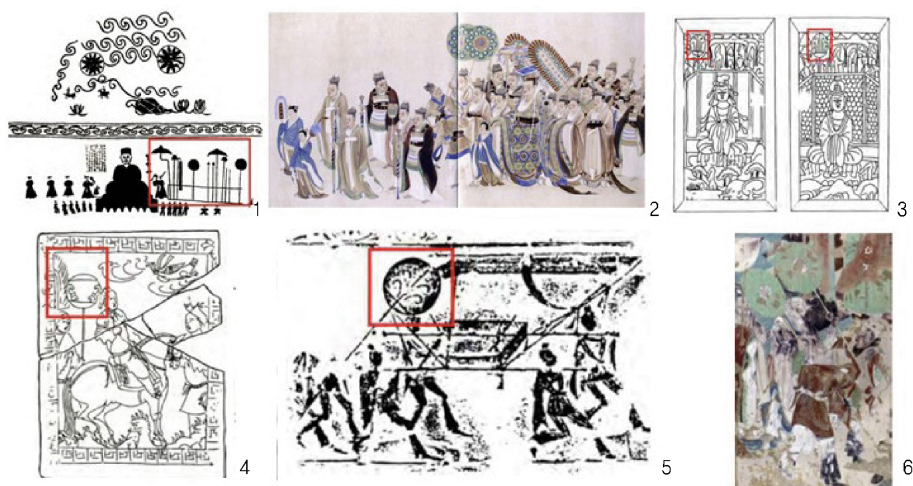
조형장 철판의기의 용도는 무기로 보기도 하는 유자이기와는 달리 철판의 형태와 조형 장식이 부착된 점 등을 근거로 무기나 실용이 아닌 의례용 기물, 위세품, 신분 상징물, 종교 매개체 등으로 본다.

유자이기는 형태와 벽화 등을 근거로 실용기로 써 깃봉(宋桂鉉 2001)이나 행차용 장엄구(조원창



[도면 12] 형태에 의한 용도 추정

- (1. 깃봉(금수 네이버블로그) 2. 깃봉(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
3. 살포(국립김해박물관)



[도면 13] 형태에 의한 용도 추정(행차용 장엄구, 조원창 2017 改變)

(1. 소통광승사묘 북벽 화상 2. 돈황석굴 제194굴 3. 낙양석관상 묘주화상 4. 동헌학장묘 보연화상전
5. 청주전가화상석 제5석 6. 돈황석굴 제220굴)

2017) 등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행차용 장엄구로 추정한 연구에 제시된 돈황석굴 등의 벽화에는 각종 형태의 장엄구가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물론 권수형·가시형 刺가 부착된 유자이기와 형태가 같은 것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유자이기의 형태가 한 지역, 동일 시기, 같은 형식의 무덤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점, 유자이기가 출토되는 무덤 또한 전체 고분군 중에서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상이나 의례를 바탕으로 한 상징물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형화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는 점 등은 오히려 주인공의 취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하였던 행차용 장엄구로 보기도 하였다(조원창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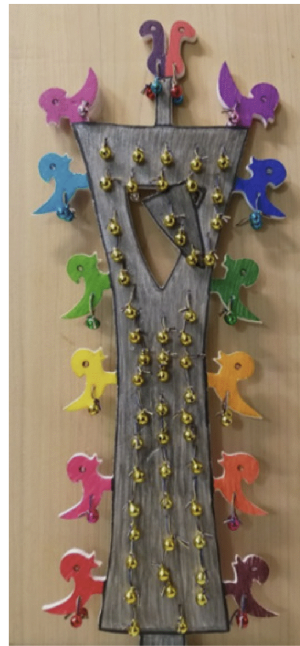
하지만 행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귀족 이상의 지배층이라는 전제를 해야 할 것이다. 고려·조선시대에도 의례·의전에 대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규정과 법도에 따라 행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삼국시대에 행차 등의 의전에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긴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집단의 의전에 사용된 행차용 장엄구로써의 용도는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형장 철관의기를 소유한 피장자의 개별적 취향보다는 그 집단의 사상이나 의례 등에 사용된 매개체로써의 기능에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볼 때, 유자이기와는 달리 조형장 철관의기의 철판에 3열 이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뚫린 투공이 주목된다. 투공에 고리를 걸어 방울 등을 매

달아 소리를 내는 기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형장 철판의기는 장식이 극대화된 상징물이자 방울을 달아 소리를 내는 장송의례나 巫俗에 사용된 宗教器物, 즉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영 집단의 사상이나 의례를 바탕으로 한 상징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金貞培(1978)에 따르면 蘇塗는 귀신을 섬겼고 대목을 세워 방울과 북을 걸어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곳으로 이러한 의례 행위는 巫儀를 연상하게 한다. 방울은 巫에서 사용했던 도구이며, 天君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방울은 巫儀를 연상시키는 매개체로써 삼한시대의 소도와도 연결하고 있다. 金杜珍(1985)은 북과 방울은 거울과 함께 모두 巫儀에 쓰이는 神物로 보았고, 나희라(2003)는 『三國志』 倭人傳 卑彌呼 관련 기사를 근거로 卑彌呼를 巫的인 성격의 인물로 보기도 하였다. 즉 방울은 巫儀이나 제사 등 의례를 상징하며 새와 연결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1999)도 고대에서 새는 곡령, 조령, 영혼 운반자 등으로 다양하였기 때문에 농경의례, 태양에 대한 숭배, 장송의례에 있어서 중요한 관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점을 들어 조형 장식과 방울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초기철기시대부터 영남지역에 청동방울과 한경, 새모양토기 등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아도 조형장 철판의기를 巫俗信仰과 관련된 宗教器物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형 장식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김해지역의 피장자 人骨에 偏頭¹⁰⁾가 행해졌던 것 또한 巫儀이나 제사 등 의례를 주관하던 특수신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로 추정된다.



[사진 3] 체험교육교재로 활용되는 조형장 철판의기의 모습

10) 裴孝元(2019)에 의하면 4세기대의 예안리 고분군 출토 인골 중 이천 없이 확실하게 편두가 행해진 인골은 총 4개체였으며 4개체의 부장유물상을 검토한 결과 특수신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두개변형이 이루어진 인골까지 포함하면 총 10개체에 해당되며, 삼한~삼국시대 전반에 걸쳐 편두가 행해진 인골의 성격을 검토한다면 특수신분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고자 한다.

2. 鳥形裝 鐵板儀器 副葬의 意味

조형장 철판의기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최고 위계 무덤에 매납된다. 중대형의 무덤이라도 위계가 높은 무덤에 매납되며, 중소형의 무덤에는 출토되지 않는 양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모든 수장급이나 지배자의 무덤에 조형장 철판의기가 빠짐없이 부장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조원창(2017)은 합천 옥전 23호분이나 경주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 등에는 유자이기가 부장되지 않는 반면, 황남대총 남분과 금령총, 식리총 등에서는 출토된다는 점을 근거로 유자이기를 집단의 장례나 상징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기가 아닌 피장자의 취향에 의한 선택적 기물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 집단의 모든 대형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형분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매장과 장례 등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의례는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부장유물의 패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무기류의 구비, 농공구류, 갑주·마구의 완비, 장신구의 소유 등을 통해서도 각 집단이나 정치체만의 일정한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토기양식 또한 껍을 같이하며 특정 기종의 점유와 부장 공간의 구획 등은 그 집단만의 정해진 규칙에 의해 행해졌던 것은 선험의 연구성과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즉, 조형장 철판의기를 소유한 주인공이 특수 신분으로서 국가적 의례를 주관하였다고 상정하더라도 말이산 34호분과 같은 초대형분에 조형장 철판의기가 부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부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무덤의 주인공이 생전에 소유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즉, 조형장 철판의기를 장례나 상징체계와 관련된 의기로 보더라도 모든 초대형분에 부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황남대총 남분에 금관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최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형장 철판의기의 부장 의미에 대해 趙榮濟(2011)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의기는 안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적 의기로 제작과 소유에는 지배집단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보았으며, 柳昌煥(2012)은 아라가야의 장송의례 또는 내세관을 상징하는 자료이자 피장자의 신분과 관련된 상징물로 보았다. 徐姈男(2013)은 유자이기를 가야·신라문화권의 상장예속 유물로 『禮記』의 신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翬의 기능을 하였던 의기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도 대체로 집단을 상징하는 의례에 사용된 기물로 보며 의기의 제작과 소유에 지배집단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

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조형장 철판의기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 조영 집단의 사상이나 의례를 바탕으로 한 상징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조형장 철판의기는 의기로써 방울 등을 달아 소리가 나게 하여 고대인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는 장송의례나 巫俗에 사용된 宗教器物로, 지배집단의 의례에 사용된 상징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전체의 시·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보아도 특징적이고 특이한 형태의 철판의기는 조형장 철판의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조형장 철판의기가 부장된 무덤의 피장자는 제사를 주관하는 특수신분 혹은 최고 위계의 신분으로 제사를 주관하였을 것이다. 즉, 삼한시대부터 이어져 온 무속신앙과 상장의례를 주관하였던 신분의 주인공이 조형장 철판의기를 소유할 수 있었으며 사후에도 피장자 옆에 함께 매납되었던 것이다. 조형장 철판의기가 매납된 HM13호분 천문개석의 존재 또한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에 출현하여 고총고분의 전성기인 5세기 중·후반대에 조형장 철판의기는 최고 위계의 위세품으로 무덤에 매납되었다. 출현과 함께 대형급의 무덤에 피장자와 함께 1~2점씩 매납되었다. 또한 조형장 철판의기가 매납된 무덤에는 대형의 철판정도 다량 매납되며, 함안양식토기 기종의 완비, 무기류 세트와 갑주·마구류의 완비 등 위세품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5세기 말, 전성기가 지나 위세가 약화되면서 조형장 철판의기도 위세품으로써의 의미가 약해진다. 즉 대형 철판정으로 제작되던 것에서 세장한 철판으로 소재가 바뀌게 되고, 조형 장식도 장식이 극대화되고 화려하던 것에서 형상화되어 3개씩 부착되고 선단부에는 형상화된 장식물만 부착되는 등 장식적인 요소가 약화된다. 이러한 양상은 6세기 1/4분기까지 이어지며 6세기 2/4분기에는 더 이상 부장되지 않고 완전히 소멸한다.

즉, 조형장 철판의기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 부장된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5세기에 출현하여 아라가야의 전성기에 국가적 의례를 주관하던 최고 위계의 신분에 부장되다가 고총고분의 쇠퇴와 함께 소멸한 아라가야의 위세품이자 종교기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V. 結語

함안과 합천지역의 유자이기는 영남지역 전역에서 출토되는 유자이기와는 형태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異形有刺利器로 분류되어 왔다. 최근 함안과 합천지역 출토 유자이기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조형 장식에 주목하여 조형장식 유자이기, 조형장 철판의기 등의 명칭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조형장식이 부착된 함안지역의 유자이기를 분석하여 조형장 철판의기로 명명하고 용도와 부장 의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함안지역의 조형장 철판의기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만 출토되어 함안 말이산 고분군이 아라가야의 중심 고분군으로써의 위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심 고분군 중에서도 최고 위계의 무덤에만 부장된 점은 신분을 나타내는 위세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형장 철판의기는 새모양 장식을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고 방울 등을 달아 소리를 냈던 장송의례나 巫俗에 사용된 기물이었다. 5세기에 대형철판과 함께 대형분에 매납되며 6세기 2/4분기에 소멸한 양상은 고총고분문화의 흥망성쇠와 궤를 함께한 의례·종교적 위세품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인근 합천지역에서 출토되는 조형장 철판의기와의 관련성과 의미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향후 과제로 남기며, 후기 가야의 위세품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투고일 2025. 4. 25 | 심사완료일 2025. 9. 16 | 게재확정일 2025. 9. 23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4,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밀 지표조사 학술용역』.
- 國立金海博物館, 2004, 『영혼의 전달자』, 2004 국립김해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韓國考古學事典』, 학연문화사.
- _____, 2015, 『韓國考古學專門事典: 古墳遺物篇』.
- 國史編纂委員會, 1986, 『국역 中國正史 朝鮮傳』.
- 권오영, 1999, 「한국 고대의 새(鳥)관념과 제의(祭儀)」, 『역사와 현실』32, 한국역사연구회.
- 金基雄, 1976, 「三國時代의 武器小考-考古學資料를 中心으로-」, 『韓國學報』5.
- _____, 2004, 「고대의 관상철부에 대한 검토-영남지역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53, 韓國考古學會.
- 金東鎬, 1971, 『東萊福泉洞第1號古墳發掘調査報告』, 東亞大學校博物館.
- 金杜珍, 1985, 「三韓 別邑社會의 蘇塗信仰」,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 金斗喆, 2011, 「加耶·新羅 古墳의 年代觀」, 『考古廣場』9, 釜山考古學研究會.
- _____, 2013,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 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박물관.
- 金榮珉, 1996, 『嶺南地域 三韓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1997, 「蔚山下堡 수습철기의 검토」, 『伽耶考古學論叢』2, 伽耶文化研究所.
- _____, 2000, 「有刺利器로 본 4~5세기의 福泉洞古墳群」,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학연문화사.
- _____, 2006, 「儀器性 遺物로 본 福泉洞古墳群의 地域性」, 『古代의 南東海岸 國家形成』, 제8회 학술세미나, 福泉博物館.
- _____, 2007, 「加耶地域 有刺利器의 性格과 意味」, 『加耶의 情神世界』, 제13회 가야사학술회의.
- _____, 2008, 「金官加耶의 考古學의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2, 「금관가야와 양동리고분군-통형동기 부장을 중심으로-」,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金貞培, 1978, 「蘇塗의 政治史的 意味」, 『歷史學報』79, 歷史學會.
- 金正完, 1994, 「咸安地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 變化」,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0, 「咸安圈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變化」, 『伽耶考古學論叢』3, 伽耶文化研究所.
- 金志勳, 2014, 「嶺南地域 新羅墳墓 出土 有刺利器에 대한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訓熙, 2011, 「蘇手形 有刺利器의 變遷과 意味」, 『韓國考古學報』81,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8,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유자이기의 변천과 의미」, 『嶺南考古學』82, 嶺南考古學會.
-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 _____, 2019, 「진·변한의 신앙과 의례」, 『삼한의 신앙과 의례』, 2019 가야학술제전, 국립김해박물관.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21, 『함안 말이산 고분군 13호분과 주변 고분 상·하본문·고찰·부록』.
- 류위남, 2009, 「삼한시대 영남 출토 주조철부와 관상철부 연구」, 『嶺南考古學』51, 嶺南考古學會.
- 柳昌煥, 2007, 「加耶馬具의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2, 「부장철기로 본 아라가야의 수장들」, 『중앙고고연구』제11호,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문창로, 2019, 「삼한의 신앙과 의례」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삼한의 신앙과 의례』 2019 가야학술제전, 국립김해박물관.
- 朴東百·秋淵植, 1987, 「IV. 고찰」, 『昌原 道溪洞 古墳群』I, 昌原大學校博物館.
- 朴升圭, 2010, 『加耶土器 樣式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박진욱, 1963, 「신라의 가시가 돌친 무기에 대한 약간의 고찰」, 『고고민속』4,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박진일, 2012, 「김해 양동리 유적 2011년도 발굴성과」,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朴天秀, 2003, 「地域間 並行關係로 본 加耶古墳의 編年」,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 朴天秀, 2010, 「新羅 加耶古墳의 曆年代」, 『韓國上古史學報』69, 韓國上古史學會.
- 裴孝元, 2018, 「釜山地域 墳墓出土 新式陶質土器 研究」,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19, 「禮安里遺蹟 偏頭 人骨 出土 古墳의 性格 檢討」, 『가야사람 풍습연구 -편두-』, 2019 가야학술제전, 국립김해박물관.
- _____, 2022,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조사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활용」, 『고고학지』28, 국립중앙박물관.
- 徐始男, 2013, 「儀器性 鐵器로 본 삼한·삼국시대 울산지역 철기문화의 상징성」, 『蔚山鐵文化』, 울산박물관.
- 徐始男·李賢珠, 1997, 「三韓·三國時代 鐵器의 儀器的 性格에 대한 일고찰 -鐵矛와 有刺利器를 中心으로-」, 『伽倻考古學論叢』2, 伽倻文化研究所.
- 宋桂鉉, 1995, 「洛東江下流域의 古代 鐵生産」, 『伽倻諸國의 鐵』,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_____, 2001, 「전쟁의 양상과 사회의 변화」, 『고대의 전쟁과 무기』, 제5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요지, 북천박물관.
- _____, 2003, 「철기의 부장양상으로 본 아라가야의 발전」, 『伽倻文化』16, 伽倻文化研究院.
- 申敬澈, 1995, 「三韓·三國時代의 東萊」, 『東萊區誌』, 동래구지편찬위원회.
- _____, 2000, 「金官加耶 土器의 編年」, 『伽倻考古學論叢』3, 伽倻文化研究所.
- 申東昭, 2007,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禹炳喆·金玟澈, 2009, 「권수형철기를 통해 본 진·변한 정치체의 상호작용 -대동 정치체 상호작용 모델(Oeer polity interaction model)의 적용」, 『韓國上古史學報』65, 韓國上古史學會.
- 禹枝南, 2000, 「咸安地域 出土 陶質土器」, 『道項里·末山里 遺蹟』, 경남고고학연구소.
- 尹亨準, 2009, 「목관묘문화의 전개와 삼한 전기사회」,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健茂, 1992, 「韓國 青銅儀器的 研究 -異形銅器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28, 韓國考古學會.
- 李殷昌, 1972, 「武器」, 『韓國의 考古學』.
- 李在永, 1989, 「有刺利器에 對한 一研究」, 『考古研究』, 嶺南青年考古學研究會.
- 李在賢, 2006, 「영남지역 출토 삼한시기 倣製鏡의 文樣과 의미」, 『韓國考古學報』53,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2, 「양동리고분군 출토 권수문 철기의 상징적 의미와 출현 배경」,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_____, 2017, 「신라의 편두습속과 그 의미」, 『신라문화유산연구』창간호,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 李柱憲, 2000, 「阿羅加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8, 「아라가야에 대한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지역과 역사』42, 부경역사연구소.
- 李賢珠, 1990, 「Ⅲ. 考察, 2) 有刺利器에 대하여」, 『東萊福泉洞古墳群Ⅱ』,釜山大學校博物館.
- 林孝澤·郭東哲, 2000, 『金海良洞里古墳文化』, 東義大學校博物館.
- 朝鮮總督府, 1931,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圖板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 _____, 1932,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本文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 趙榮濟, 1988, 『陝川 玉田古墳群Ⅰ』, 慶尙大學校博物館.
- _____, 2011, 「鳥形裝 鐵板儀器考」, 『考古廣場』9, 釜山考古學研究會.
- 조원장, 2017, 「中國 魏晉南北朝時代 莊嚴具를 통해 본 5~6世紀代 有刺利器의 性格 再檢討」, 『白山學報』第

107號, 白山學會.

崔景圭, 2023a, 「아라가야 중심과 주변의 古墳조」, 『韓國考古學報』128, 韓國考古學會.

_____, 2023b, 「아라가야의 高塚과 그 體系」, 『嶺南考古學』96, 嶺南考古學會.

洪潛植, 2001, 「농기구와 부장유형 -영남지역의 2세기 후반~4세기대 분묘부장품을 대상으로-」, 『韓國考古學報』44, 韓國考古學會.

_____, 2014, 「신라·가야 고분 교차편년」,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東潮, 1978, 「古新羅 有棘利器考」, 『古代學研究』89.

_____, 1995, 「弁辰과 加耶의 鐵」, 『加耶諸國의 鐵』.

_____, 1998, 『古代東アジアの鐵と倭』.

※ 發掘調査報告書 省略

The Study on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in Haman region

Bae, Hyo-Won(Curator, Busan Metropolitan City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The bird-shaped thorn(有刺利器) artifacts from the Haman and Hapcheon regions are morphologically distinct from those unearthed throughout the broader Yeongnam area, and have therefore long been classified by many scholars as variant spiked implement bird-shaped thorn(異形有刺利器). In recent years, debates concerning the terminology for The bird-shaped thorn excavated in Haman and Hapcheon have continued.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ir decorative features, alternative designations such as decoratively crafted The bird-shaped thorn or decorated iron-plate implements have been proposed.

This study analyzes The bird-shaped thorn with attached decorative elements from Haman and designates them as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鳥形裝 鐵板儀器), further examining their function and the meaning of their inclusion as grave goods.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from Haman have been found exclusively in the Ancient Tombs in Marisan Mountain cluster, indicating that this cluster functioned as the central burial grounds of the Haman region. Moreover, their deposition only in the highest-ranking tombs within the central tumuli strongly suggests that they served as prestige goods symbolizing social status.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prestige goods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of the central elite tombs in Haman,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origins, functions, modes of deposition, and symbolic significance of Ara Gaya prestige artifacts.

Unlike The bird-shaped thorn distributed across the Yeongnam region, which appeared in the 3rd century and persisted until the late 6th century,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of the Ancient Tombs in Marisan Mountain cluster emerged in the 5th century and completely disappeared by the second quarter of the 6th century. Their material was iron-plates(鐵鋌). Beginning in the first quarter of the 5th century, large iron-plates were deposited in tombs, a practice that increased in scale during the mid to late 5th century. By the 6th century, however, as the form of the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shifted into elongated rectangular shapes, iron-plates ceased to be interred. This pattern suggests that iron ingots served as the raw material for producing the a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The a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reflect conceptions of the afterlife, while the attachment of bells or similar devices to produce sound indicates their use in funerary rituals or shamanistic practices. Their association with large iron-plates and deposition in grand tombs during the 5th century, followed by their disappearance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6th century, parallels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onumental tomb culture. Accordingly, these ritual-religious prestige goods can be regarded as symbols of Ara Gaya itself.

Key words : Haman, Ancient Tombs in Marisan Mountain, Iron-plate ritual utensil with Bird decorations, iron-plates, bird-shaped thorn